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Dreaming of Korea, the Great Cultural Power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인간의 사회는 언제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싸워왔다.

어느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풍요로운 삶이 아닌 우리 모두의 품격 높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의 발전과 문화적인 삶 즉 품격 높은 삶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기 위해서는 과학의 발전이 전제 되어야하며 과학의 발전은 지식과 기술의 발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과학의 발전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안정되면 인간 사회는 문화적인 삶을 시작한다. 국가의 최후의 목표는 그래서 문화대국 일 것이다.

한 국가가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키려 해도 경제적 풍요없이는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안정 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문화가 생산되며, 문화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가 깊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반도체 및 IT분야에서의 발전은 세계가 놀라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10위 국가이다. 이 제는 문화이다. 아직 우리는 문화적 측면에서 후진국이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가 왜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해 왔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건축문화 부분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며, 건축문화의 시너지 효과는 동남아 및 일본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보다 더욱 더 클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준비중인 건축문화 신진화 위원회가 문화대국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해줄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 현재의 제도는 건축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전문가의 견해가 비전문가에 예측되어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주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문가인 건축사(Architect)를 움직이고 지시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건축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판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판결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 건축문화는 그 시대 그 땅의 역사적 배경 아래 발전한다. 외국의 건축물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그대로 옮겨 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전통이 배여 있는 우리만의 건축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셋째 - 명품우주의 표현에 집착하는 랜드마크적 건축물을 경계해야 한다. 외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즉 명품들은 현재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색한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런 무분별한 명품들의 잔치는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건축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건축문화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건축사들을 포장하고 그들이 설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호에 온 힘과 열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축은 건설 기술로 인식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건축은 문화이다.

정부의 부처도 건설교통부안에 건축이 들어있다. 이는 건축을 문화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건설로 보는 시각이다. 건축이 문화로 발전하려면 제도적 보안 장치가 필요하며 지원이 절실하다. 르네상스의 발생 배경을 보면 이탈리아 북부 피렌체지방의 부호들의 지원아래 문예 부흥은 시작되었고 이후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건축문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문화진흥법을 제안하고 동시에 정부의 애정어린 지원이 필요함으로 지금의 건설교통부나 문화공보부가 아닌 별도의 현재 문화재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업무 및 건축문화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건축문화부의 신설이 요구된다. ㉮